

##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독서 자료/ 서성수 국어

### 칸트의 이성 중심 철학 다시 보기

이성 중심 철학과 경험 중심 철학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은 **경험 없이도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유 관념이 있는지에 있다.** 이성 중심 철학은 선형적 본유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경험 중심 철학은 이러한 본유 관념을 부정한다.

철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인 칸트를 통해 이런 철학의 구분을 이해해 보는 것이 좋다. 칸트는 경험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인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인식 능력으로 지성, 감성, 상상력을 이야기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성, 감성 그리고 상상력 같은 **인식 능력은 감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 능력의 기반에는 선형적인 규칙과 법칙들이 존재하게 된다. 실제 '희고 딱딱한 분필'을 인식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다. '인식했다'는 이러한 선형적 개념들이 외부 사물에 달라붙어버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경험중심 VS 이성중심

\* 이분법적 구조

\* 감각과 경험

### 칸트가 생각하는 이성과 경험의 관계

극단을 달리던 이성중심의 철학과 경험중심의 철학을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한 학자인 칸트는 그의 책 「순수이성비판」에서 "선형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를 묻는다. 판단이란 주어와 술어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런 판단은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으로 구분된다. **분석판단**에서는 술어가 주어가 이미 포함하는 성질을 서술한다. "국어 교과서의 모양은 네모이다"가 분석판단의 한 예이다. 반면 **종합판단**에서는 술어가 주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나 성질을 말한다. "국어 교과서는 더럽다"가 종합판단의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더럽다는 서술어는 국어 교과서에 새로운 의미나 특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건 종합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술어를 인지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가 더럽다는 것은 교과서를 감각과 유사한 개념인 오성을 통해 인지하고 지각할 때 술어로서 기능하며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기에 종합 판단은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 교과서가 더럽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는 참이더라도 앞으로의 경험에 대해서까지 보편적으로 참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독서 자료/ 서성수 국어

그런데 경험과 무관하더라도 종합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명제가 그렇다. 이 명제는 1더하기 2라는 주어와 3이라는 술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거나 상대적으로 때에 따라 옳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1+2=3임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경험과 무관하게 제시되는 종합 판단을 "선험적 종합판단"이라고 말한다.

칸트는 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순수이성비판> 목적으로 삼는다. "경험을 초월한 종합판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사용하는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철학의 '형이상학'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칸트가 증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물음이다.

칸트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선험적인 개념이 공간과 시간이라고 본다. 그는 이 선험적인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활용한 판단에서는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형이상학의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증은 우선 하면서 칸트가 지성과 이성을 구분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칸트 이전에는 지성은 이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극심한 대립을 이루었던 합리론과 경험론에서도 지성을 이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실제 이성대신 지성을 사용하면서 합리론의 경우에는 선험적인 지성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험론에서는 경험 없는 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칸트에게 이성은 감성이나 지성보다 더 높은 층위에서 활동하는 개념으로 지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성과 구분되는 이성은 '추론'으로 작동한다. 지성이 개념들을 형성한다면 이성은 이 개념들을 결합하여 판단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성이 이 판단들을 결합하여 추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성은 이에 멈추지 않고, 개념들과 판단들을 끊임없이 결합하여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 떨어진다/사과/굴 같은 개념들은 지성에 의한 개념(시간과 공간)들이거나 경험이 가능한 개념이다(사과 굴 떨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종합돼서 "사과가 떨어진다" 같은 판단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판단들을 결합하여 "물체는 떨어진다." 같은 한 층 높은 추론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서 이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성을 활용해 '물체가 떨어진다.'까지 추론하는 건 합당하지만 이성은 더 높고 완벽한 통일성을 원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이 물체를 떨어지게끔 만들었다.' 처럼 당위적이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추론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이성의 경향성을 칸트는 '이념'이라고 부른다. 칸트는 필연적인 이성의 활용까지는 긍정하지만 '이념'의 부분까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성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의 사용을 '경험'이 가능한 영역까지 한정시키고 '경험'이 개입할 수 없는 당위적인 부분까지 늘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